

김포 공중화장실

Paradigm of Coexistence

김희곤 / 흥간 건축사사무소

Designed by Kim Hee-Kon

APT단지내 근린공원에 위치하는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다. 우선 기초 화장실의 문제점 즉 주변공원으로 건물이 확장 연계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계획의 출발점이었다.

부가적으로 적극적인 공원의 일부로서 당당하게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산책길의 일부 놀이터의 연장선상에 올려놓는 것이 계획의 전제였다. 문제제기가 폴포먼스로써 발전한 애이다.

- 퍼포먼스 -
- 화장실이 공원의 당당한 일부가 될것.
- 화장실이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.
- 화장실 및 관리실에 로비개념을 도입할 것.
- 화장실 Mass가 조각적이고 놀이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.
- 배설의 기쁨, 상상의 추진력, 어린이의 꿈과 결부시킴.

재미있는 발상을 건축형태 및 기능으로 계속 발전시켰던 작업이다.

형태적 의미를 부여하는 조각적 요소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와 연결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공간지각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공원의 조형물과 특히 장소적 인식성의 변화가 일어나길 유도했다.

특히 APT에서 내려다 볼때 UFO가 공원에 내려앉은 듯한 만화적인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길 기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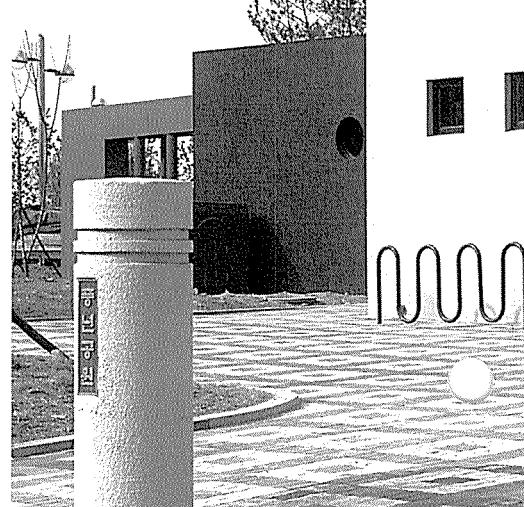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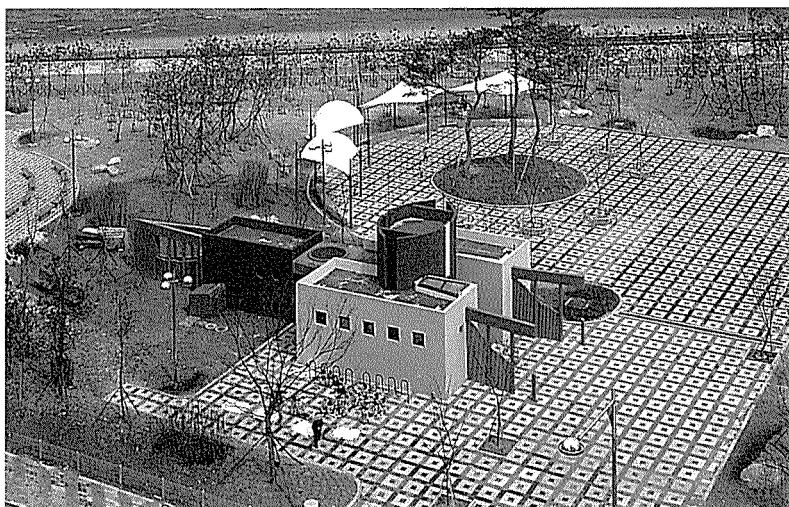
근린공원은 APT의 큰 정원이자 놀이마당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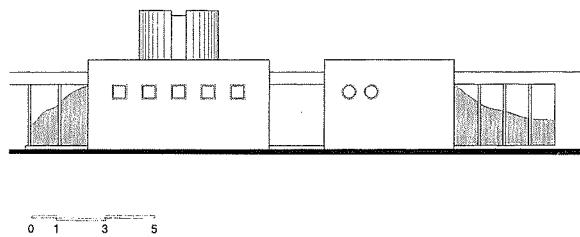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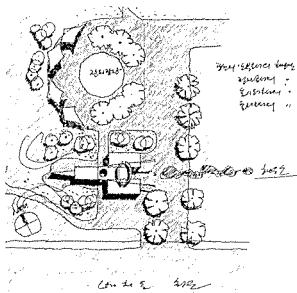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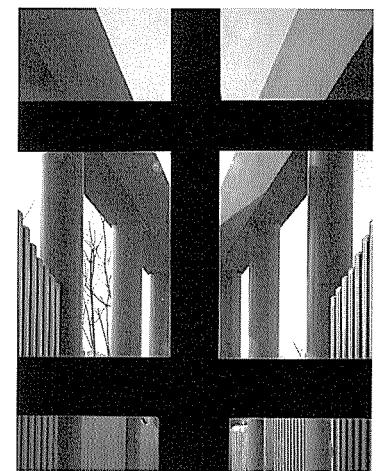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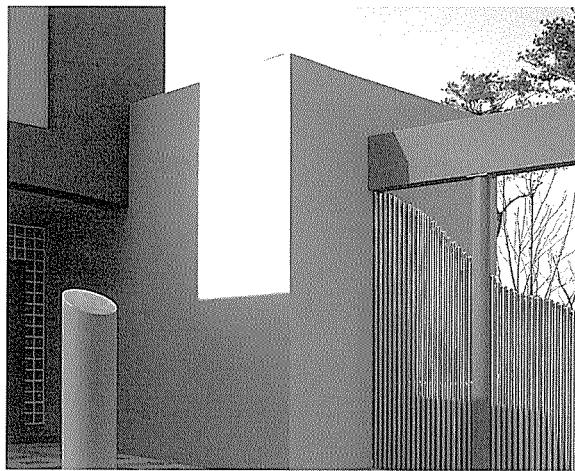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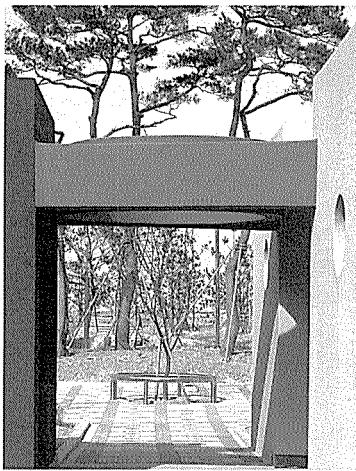
그 마당은 APT 모든 거주자의 심리적 열린 공간이다.

그 열린 공간에 어린이의 동심과 꿈을 공존시켜 현대사회의 지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를 재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. 시공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공인되는 것을 보면서 공공건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강한 사회성과 교감하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.

건축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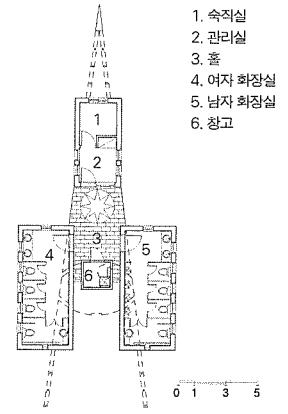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대지위치 | 경기도 김포시우지구 제1 근린공원 |
| 건축주 | 김포군청 |
| 연면적 | 72.24m ² |
| 외부마감 | 몰탈위 페인트 뽕칠 |
| 용도 | 관리실 및 공중화장실 |
| 규모 | 1층 |
| 구조 | R.C조 |
| 설계담당 | 권오상, 원윤정 |
| 사진 | 김재윤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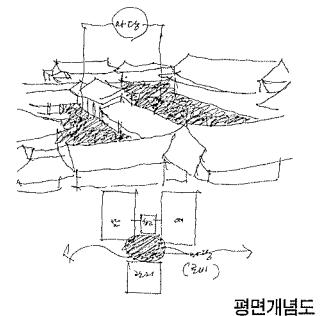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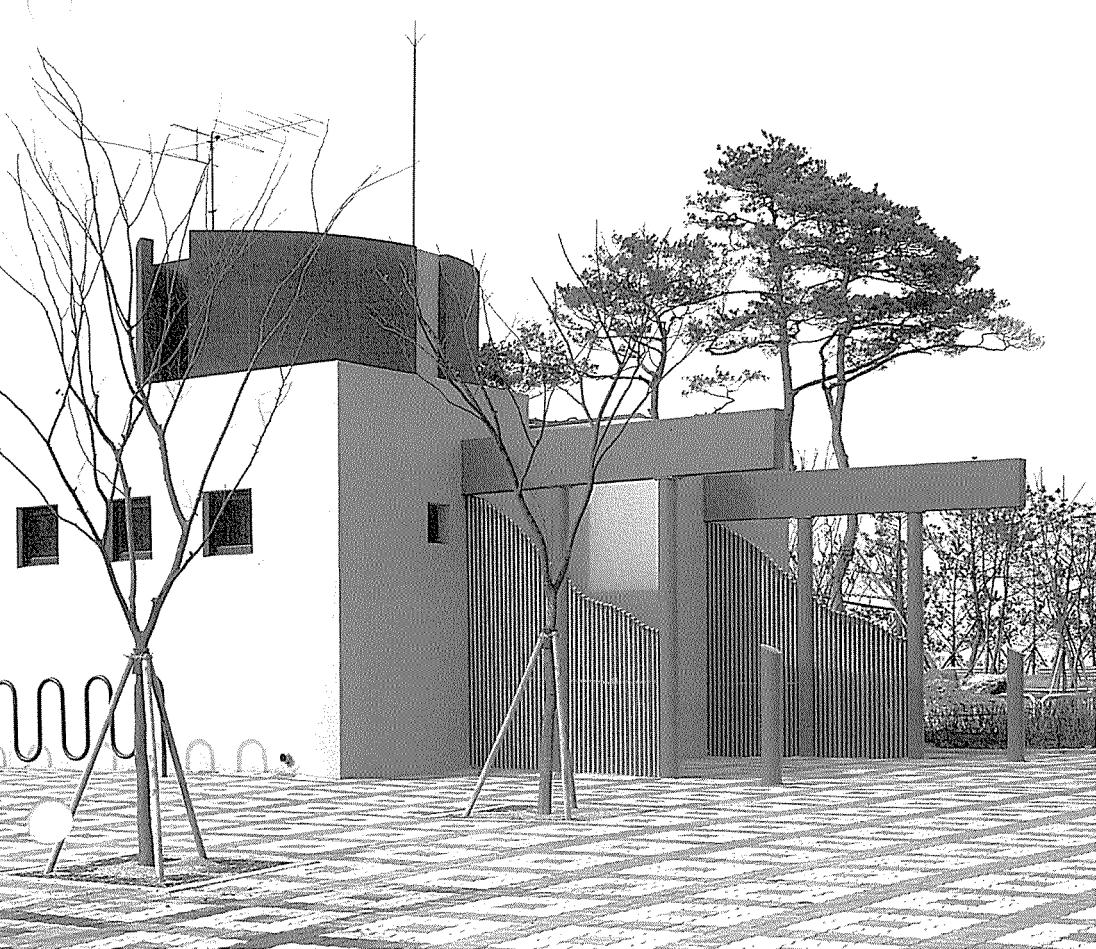


배치개념 스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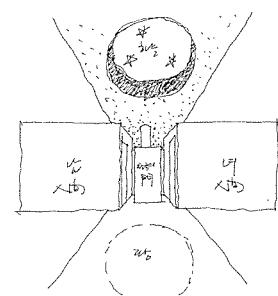
좌측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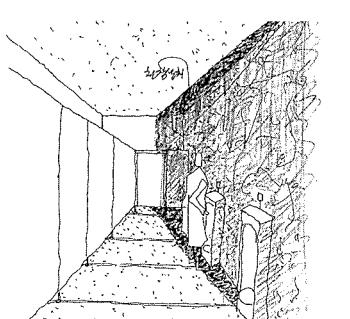
1층평면도



평면개념도



컨셉



실내침장 스케치